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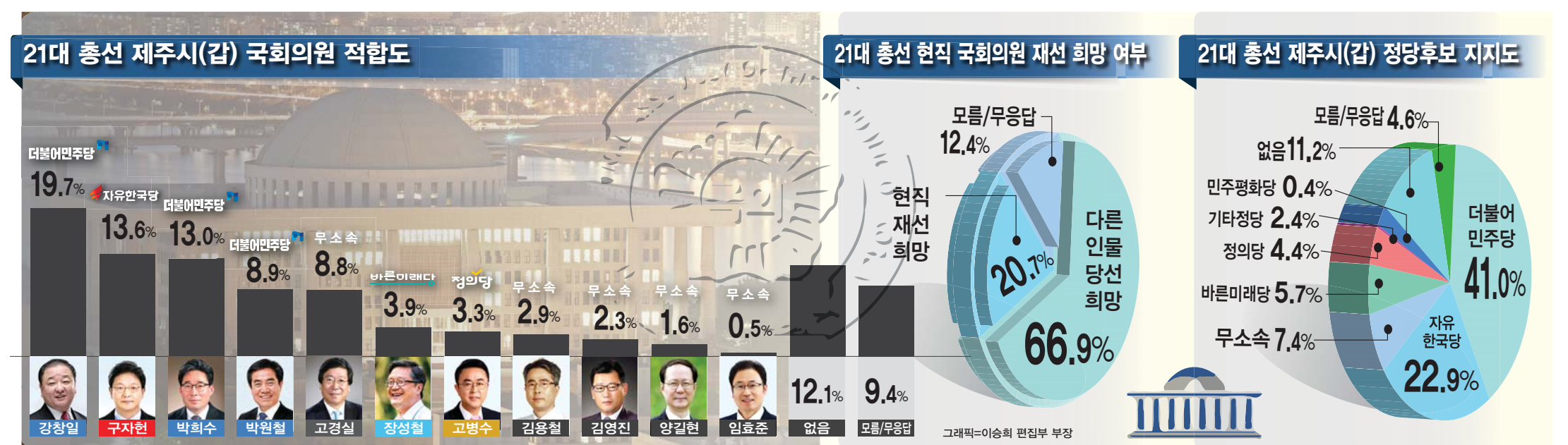
제주시갑 선거구

뚜렷한 강자 없이 혼전... "민주당 후보 지지" 41%

가장 많은 후보 몰린 최대 격전지 적합도 현역 강창일 19.7% 선두 구자현·박희수·박원철·고경실 순 부동층 21.5%... 표심 향배 주목 응답자 66.9% "다른 인물 희망"

2020년 4·15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 20%대를 넘겨며 강세를 보인 후보가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도내 3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들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지지율이 40%대를 넘어서면서 총선까지 민주당의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 적합도=제주시갑 선거구 유권자에게 21대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후보들 중 누가 차기 국회의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구자현 전 도당 위원장이 13.6%,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13%,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도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8.9%, 자유한국당(조사 당시 무소속)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8.8%로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3.9%, 정의당 고병수 도당 위원장은 3.3%, 무소속 김용철



철 공인회계사는 2.9%, 무소속 김영진 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2.3%, 무소속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1.6%, 무소속 임효준 전 제주매일 부국장은 0.5%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21.5% (없음 12.1%, 모름/무응답 9.4%)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9세 포함)·30·40대에서는 강창일 의원, 50대에서는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 60대 이상에서는 구자현 전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장을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강창일 의원의 적합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서부 읍·면지역(애월·함림읍, 한경·추자면)에서 20.6%, 중서부 내륙동지역(노형·연동)에서 18.2%, 중서부 해안동지역(삼도1·2동, 용담1·2동, 오라·

도두·이호·외도동)에서 20.4%를 기록했다. 선두권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 재선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인물 당선 희망(66.9%)'이 '현직 재선 희망(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1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 포함) 63.2%, 30대 69.1%, 40대 61.5%, 50대 75.2%, 60대 이상 66.1%가, 지역별로는 서부 읍·면 62.2%, 중서부 내륙동 66.3%, 중서부 해안동 71.5%가 '다른 인물 당선'을 선택했다. ▶정당 후보 지지도=오는 4·15총선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로 가장 높은 지

지율을 얻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후보 22.9%, 무소속 후보 7.4%, 바른미래당 후보 5.7%, 정의당 후보 4.4%, 민주평화당 후보 0.4%순이었다. 기타 정당 후보는 2.4%였으며,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5.8% (없음 11.2%, 모름/무응답 4.6%)였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20대(19세 포함) 35.2%, 30대 54.2%, 40대 55.1%, 50대 36.1%)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자유한국당 후보(39.7%)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서부 읍·면 40.2%, 중서부 내륙동 41.4%, 중서부 해안동 41.1%)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오로지자

Table with 5 columns: 구 분, 조사 원료, 목표 할당, 가중값 배율. It shows detailed breakdowns of the survey data by region, age group, and gender.

서귀포시 선거구

민주당·현역 강세... 부동층 22.3% 주요 변수로

적합도 현역 위성곤 48% 우세 김삼일 10.2%·강경필 9.1% 순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위 자유한국당·무소속·정의당 순 47.2% "다른 인물" vs 41% "재선"

서귀포시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지도 및 적합도가 나란히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층도 22.3%로 파악돼 내년 총

선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적합도=차기 서귀포시 국회의원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8%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당협위원장 10.2%, 무소속 강경필 변호사 9.1%, 무소속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5.9%, 김중식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4.1%, 국민새정당 박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연대총회 부총회장 0.4% 순으로 조사됐다. '없음'은 13.2%, '모름·무응답'은 9.1%였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없는 부동층(16.8%)보다 높은 22.3%여서 남은 기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위성곤 의원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20대

(19세 포함) 42.9%, 30대 51.3%, 40대 65.8%, 50대 48.7%, 60대 이상 37.4%를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도 위성곤 의원은 남원·성산읍·표선면 47.8%, 동홍·영천·효돈·송산·중앙·정방·천지동에서 50.9%, 예래·중문·대천·대륜·서홍동 47%, 대정읍·안덕면 46%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위성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5%)과 바른미래당 지지층(55.6%), 정의당 지지층(55.1%), 민주평화당 지지층(53.5%), 무소속을 제외한 무당층(51.2%)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김삼일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39.1%), 강경필 변호사는 무소속(32%), '기타 정당'(27.8%)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원희룡 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한 경우(34.6%)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63.8%) 모두에서 위성곤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업(35.5%), 자영업(53%), 사무직(56%), 노동직(57.9%), 가정주부(52.7%), 학생(57.6%) 등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강경필 변호사는 수산업(38.2%)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 재선을 희망하냐'는 질문에서는 '다른 인물이 당선되길 원한다'는 응답이 47.2%로 '현직 재선을 희망한다'는 답변(41%)보다 6.2%p나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50.2%), 30대(53.7%), 60대 이상(51.8%)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을 얻었다. >>3면에 계속

Table with 5 columns: 구 분, 조사 원료, 목표 할당, 가중값 배율. It shows detailed breakdowns of the survey data by region, age group, and gender.

Advertisement for Sejong Construction Co., Ltd. featuring a couple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the text: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한 한해! 희망찬 새해! 올해도 저희 세기건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항상 제주도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